

연구논문

성차별주의의 정치적 및 감정적 효과: 한국 유권자들에 대한 실험연구*

김기동** · 이재목*** · 정다빈****

본 연구는 성차별주의의 정치적 효과와 감정적 효과를 분석한다. 성차별주의는 심리적·사회적 차원의 영향력을 넘어서서 최근 정치적 차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설문실험을 통해 정치엘리트에 의해 선거캠페인에서 젠더이슈가 부각되었을 때, 양가적 성차별주의가 정치영역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 분석한다. 분석결과는 비록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감정적 반응에서는 차별적일지라도, 정치적 태도에서 드러나는 그것의 영향력은 동질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적대적 성차별주의는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성차별적인 정치엘리트에 반응하며,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간접적이고 소극적으로 이에 동조할 수 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치엘리트의 여성비하 또는 성차별 발언이 한국 유권자들 사이에 잠재되어 있던 성차별주의 성향을 개인적·사회적 차원을 넘어서서 정치영역에서도 발휘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주제어: 성차별주의, 정치적 효과, 감정적 효과, 설문실험

* 이 논문은 2016년 정부재원(교육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고(NRF-2016 S1A3A2925033), 또한 이 연구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입니다.

** 미주리대학교 정치학과 박사과정, 제1저자(gidongkim@mail.missouri.edu).

***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교신저자(jaemook@gmail.com).

****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 공동저자(aabic@naver.com).

I. 서론

이 연구는 성차별주의의 정치적 및 심리적 효과를 분석한다.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젠더이슈가 부각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성별 간 차이로 비롯된 일상적 갈등을 넘어서 남혐·여혐 등의 성차별적인 사회적 갈등의 모습으로 표출되고 있다(이나영, 2016). 이에 따라, 노동시장이나 가정 및 개인의 일상 속에서 나타나는 젠더갈등 및 성차별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는 국내 사회학과 심리학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축적되어왔다(김혜숙·안상수·안미영·고재홍·이선이·최인철, 2005; 장지연·양수경, 2007; 신광영, 2011; 허은, 2013; 김수한·신동은, 2014; 김경희·김은하, 2019; 김창환·오병돈, 2019). 그러나 이에 반해 그것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최근 몇몇 정치학 연구들이 성별에 따른 정치행태 및 태도의 차별성을 분석함으로써 성별의 영향력을 논의하고 있지만(강주현, 2020; 박선경, 2020), 성별과는 차별적인 성차별주의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인들 사이에 내재된 성차별주의가 정치영역에서 어떻게 발휘되고 있는지 실험연구를 통해 분석한다. 이러한 작업은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확대에 이어서, 한국정치에서 여성 정치인의 등장과 그들의 영향력의 확대가 더 이상 낮설지 않다는 점에서 충분한 의의를 가진다. 또한, 최근 주요 대선후보들의 여성 비하 등 성차별주의 발언이나 ‘페미니스트 대통령’ 발언 등은 한국 유권자들 사이에 잠재되어 있던 성차별주의를 활성화시키기에 충분했다. 즉, 기존의 남성과 여성 간 관계를 위계적으로 바라보던 한국사회의 뿌리 깊은 문화전통을 고려했을 때, 개인적·사회적 분야에서 점차 정치영역으로 확대되는 성차별적 인식의 영향력을 분석하는 것은 향후 젠더이슈의 부각에 따른 한국 유권자들의 정치적 태도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선거캠페인에서 정치엘리트의 여성비하 발언으로 젠더이슈가 부각되었을 때,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로 구성되는 양가적 성차별주의가 유권자들 사이에서 어떠한 정치적 태도의 변화를 야기하는지 살펴본다. 여기서의 정치엘리트는 밀스(Mills, 1956)가 제시한 전통적인 권력엘리트의 하위 개념으로 이

해될 수 있다. 즉, 정치엘리트는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권 내 공식적 지위를 가지는 이들을 지칭한다(Kritzer, 1979). 따라서 대의민주주의가 대중의 정치적 수요로서의 투입과 정치엘리트의 정책결과물로서의 산출 간 환류를 통해 작동한다는 이스턴(Easton, 1953)의 고전적 정치체계이론에 따라, 정책결정에 공식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Brookman and Skovron, 2018).

동시에, 최근 정치적 태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감정에 대한 분석도 실시함으로써 양가적 성차별주의의 정치적 및 감정적 영향력을 비교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감정적 반응에서는 차별적이지만, 정치적 태도에서는 동질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전자는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성차별주의의 정치적 효과를, 반면 후자는 소극적이고 간접적인 성차별주의 효과를 보여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 이어, 양가적 성차별주의에 대한 소개와 함께 그것의 정치적 효과와 심리적 차원에서 감정적 효과를 논의한다. 이후, 실험절차를 소개 한 뒤 분석결과를 제시하며, 이를 토대로 연구의 함의와 후속연구 과제를 논의하며 글을 맺는다.

II. 이론적 논의

1. 양가적 성차별주의와 정치적 효과

남성과 여성 간 성차는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오랫동안 관심을 받아온 주제이다. 생물학적인 성차에 대한 인식은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차별로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근대 정치철학자 루소(Jean-Jacques Rousseau)의 표현대로, 자연상태에서도 남성과 여성 간 생물학적 차이는 존재했지만 남성성과 여성성의 분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문명사회에 접어들면서 남성과 여성 간에는 ‘공격’과 ‘방어’의 메커니즘을 통해 남성성과 여성성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김용민, 2004). 특히, 초창기 대부분의 문명사회는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적인 모습으로 발전되어 왔는데(Goldberg, 1993), 이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 사회의 발전에 가장 핵심적인 교육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이러한 남성과 여성 간 교육기회의 불평등과 차별적인 교육 내용은 동양과 서양 모두에서 성차별에 대한 의식을 형성시켰다(문지

영, 2016).

따라서 성차별은 기본적으로 그 사회의 정치사회적 조건과 역사적 맥락을 바탕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인간은 그러한 사회적 조건과 맥락에 저항적인 태도를 가지기보다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기 마련이다. 시스템 정당화 이론(system justification theory)에 따르면(Jost and Banaji, 1994), 사회 구성원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 시스템의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선호를 가지며, 그 선호를 토대로 형성된 신념 또는 정당화 이념이 정치적 사고 및 행태를 구조화한다고 설명한다. 더 놀라운 점은, 이러한 구조화의 패턴이 기존의 사회질서가 형성한 불평등한 또는 정의롭지 못한 모습도 강화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사회구조로 인해 이익을 받은 집단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온 집단마저도 현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선호를 가지며, 심지어는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스스로의 지위를 합리화하기도 한다(Jost, Banaji, and Nosek, 2004).

따라서 서로 다른 성별에 대한 차별적 인식, 즉 성차별주의 역시 시스템 정당화 이론의 논리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Sibley, Overall, and Duckitt, 2007; Kray, Howland, Russell, and Jackman, 2017; Cassese and Holman, 2019). 말하자면, 남성과 여성이 생물학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서로 다른 역할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 성차별주의의 관점은 기존의 사회 내에서 공유된 성역할이라는 하나의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강화하는 양태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의 성차별주의는 항상 동질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양가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양가적 성차별주의(ambivalent sexism)에는 적대적 성차별주의(hostile sexism)와 온정적 성차별주의(benevolent sexism)가 포함된다(Glick and Fiske, 1997; Ratliff, Redford, Conway, and Smith, 2019; 안상수·김혜숙·안미영, 2005). 먼저, 적대적 성차별주의는 남성 우월성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성 역할을 강조하고, 여성에 대한 남성의 경멸적인 혹은 착취적인 관점을 정당화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남성이배적 성역할이 좀 더 온화한 방식으로 표출되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여성을 남성의 애정과 보호가 반드시 필요한 독립적이지 못한 존재로 파악한다.

그 결과, 적대적 성차별주의가 높을 경우, 사회경제적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여성의 활동이 남성의 기득권을 침해한다고 본다. 즉,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영합게임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여성의 이익은 곧 남성의 손해라고 인식한다. 예를 들어, 기업의 채용과정에서 경쟁력 있는 여성 지원자보다 남성이라는 이유만

으로 남성을 더 선호하거나(Heilman, Wallen, Fuchs, and Tamkins, 2004), 여성의 고유한 특성이 직장생활에 적합하지 않으며, 직장을 다니는 여성은 육아와 가정생활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등의 전통적 성역할에 대한 편견을 고수한다(Brescoll and Uhlmann, 2005; Christopher and Wojda, 2008). 더욱이, 정치적 영역에서도 적대적 성차별주의가 높으면, 당파성뿐만 아니라 성별, 연령, 교육수준 등 사회경제적 배경을 통제하더라도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여성 후보를 덜 지지하고 남성 후보를 더 지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Valentino, Wayne, and Ocen, 2018; Cassese and Holman, 2019; Ratliff et al., 2019). 이러한 패턴은 국내연구에서도 유사하게 확인된다. 즉, 적대적 성차별주의가 높아질수록 가정주부 등 전통적 여성 집단보다 전문직 여성 등 비전통적 여성 집단에 대해 더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김혜숙 외, 2005), 데이트폭력과 같은 젠더 이슈에 덜 민감하며(오주령·박지선, 2019), 여성 지도자를 평가할 때에도 민주적인 여성 지도자보다 남성성이 두드러지는 전체적인 통치방식의 여성 지도자를 그나마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안미영·김혜숙·안상수, 2005).

한편, 앞서 소개된 바와 같이,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비록 표면적으로는 적대적 성차별주의에 비해서 더 온화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이면에는 여전히 남성우위의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월한 남성이 열등한 여성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온정적 성차별주의 역시 기존 사회의 규범, 전통, 권위 등을 존중하는 우파 권위주의 성향과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며, 마찬가지로 남성과 여성 간 불평등한 성역할과도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다고 알려져 있다(Christopher and Wojda, 2008). 더욱이, 비록 당파성과 사회경제적 배경을 통제할 경우 그 영향력이 미약해지기는 하지만, 온정적 성차별주의 역시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보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에 대한 선호를 더 높이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Ratliff et al., 2019). 이와 유사하게, 국내에서도 표면적으로는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높을수록 전문직 여성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김혜숙 외, 2005), 여성 정치지도자를 선호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안미영 외, 2005), 또 다른 한편으로는 데이트폭력 등의 젠더이슈에 대해서는 적대적 성차별주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둔감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한다(오주령·박지선, 2019; Glick, Sakalli-Ugurlu, Ferreira, and Souza, 2002).¹⁾

요컨대, 시스템 정당화 이론이 설명하듯, 전통적인 사회에서부터 형성된 남성과

여성의 서로 다른 성역할에 대한 사회적 규정은 사회구성원들 사이에서 하나의 규범으로서 받아들여져 왔다. 그리고 그러한 고정관념은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성역할이 상당 부분 허물어진 현대사회에서도 성차별주의로 여전히 남아있는데, 이는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라는 양가적인 양상으로 표출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고유한 성차별주의 성향은 정치적 태도와 행태에 대해서도 영향을 발휘한다. 특히, 지난 미국의 대선에서와 같이 실제 선거에 여성후보가 출마하거나, 여성관 또는 젠더이슈가 부각될 경우에 성차별주의의 영향력은 더욱 두드러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1: 선거캠페인에서 여성 비하발언으로 논란이 되는 후보가 있을 때, 적대적 성차별주의가 높을수록 그 후보에 대한 지지는 높아지는 반면 상대 후보에 대한 지지는 낮아지거나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앞선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했을 때, 온정적 성차별주의의 정치적 영향력은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달리 명확하지 못할 수 있다. 이는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가진 양면성 때문인데, 즉 표면적으로는 여성에 대해 온화하고 친절한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유사하게 여성을 남성의 도움과 보호가 반드시 필요한 종속적인 존재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여성인 클린턴이 대선후보로 등장했던 지난 미국 대선에서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높을수록 트럼프의 여성비하 발언에 대한 부정적 반응으로서 클린턴에 대한 지지를 증가시켰다는 분석결과가 있는 반면(Cassese and Holman, 2019), 그러한 트럼프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클린턴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선거경쟁에서 그녀를 지지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기도 한다(Ratliff et al., 2019). 아래에서 소개되듯이, 본 연구의 실험설계에서는 여성후보의 출마를 가정하기보다 남성후보들 간 선거경쟁에서 한 후보의 성차별 발언으로 인해 젠더이슈가 부각된 상황을 가정한다. 따라서 이를 통해 한국의 맥락에서 젠더이슈가 부각될 때, 온정적 성차별주의를 가진 사람들의 정치적 태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따라서 온정적 성차별주의에 관한 다음의 두 가설을 제시한다.

1) 이와 같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잠재적으로 만연한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적대적 성차별주의보다 성평등의 측면에서 더 해로운 것으로 비판받기도 한다(Barreto and Ellemers, 2005).

가설2-1: 선거캠페인에서 여성 비하발언으로 논란이 되는 후보가 있을 때,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높을수록 그 후보에 대한 지지는 낮아지는 반면 상대 후보에 대한 지지는 높아지거나 변하지 않을 것이다.

가설2-2: 선거캠페인에서 여성 비하발언으로 논란이 되는 후보가 있을 때,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높을수록 그 후보에 대한 지지는 높아지는 반면 상대 후보에 대한 지지는 낮아지거나 변하지 않을 것이다.

2. 성차별주의의 감정적 효과

한편, 적대적 및 온정적 성차별주의로 설명되는 양가적 성차별주의는 개인이 가진 성별 혹은 여성에 대한 관점으로서 하나의 성향(predisposition)을 의미한다. 이러한 성향은 성격과 같은 개인의 고유한 기질(personality traits)만큼은 아니지만, 그 나름대로의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앞서 제시된 바와 같이, 특정한 성차별주의 성향은 정치적 선호 및 태도로서 드러날 수 있다. 또한, 성차별주의가 개인의 심리적 성향이기에 때문에 선거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성비하 발언과 여성 및 젠더 이슈의 부각은 이에 대한 심리적 반응으로서 감정을 유발할 수 있다.

감정은 정치학에서 빈번히 다루어진 주제가 아니었으나, 최근 들어 정치학에서 감정에 대한 논의는 국내외적으로 늘어나고 있다(Valentino, Brader, Groenendyk, Gregorowicz, and Hutchings, 2011; Villalobos and Sirin, 2017; Ellitthorpe, Huang, and Oliver, 2019; 이강형, 2013; 김연숙, 2014; 민희·윤성이, 2016). 감정과 정치적 태도 및 행태 간 관계에 대한 논의는 주로 두 가지 이론에 근거한다. 첫째는 정서지능이론(affective intelligence theory)이다. 이 이론은 감정으로 표현되는 정서적 반응이 정치적 상황을 비롯한 외부요인에 의해서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그렇게 발현된 긍정적 혹은 부정적 감정은 개인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한다(Marcus and MacKuen, 1993; Marcus, Neuman, and MacKuen, 2000). 이는 신경과학 분야에서와 같이, 인간의 인지적 과정보다 본능적 반응을 더욱 강조한다. 즉, 외부요인에 의한 열정, 희망, 기쁨 등의 긍정적인 감정의 발현은 감정반응 시스템에서 행동접근(behavioral approach)의 태도성향을 촉진시키는 반면, 분노와 두려움 등의 부정적인 감정은 행동억제(behavioral inhibition)의 태도성향을 촉진시킨다는 것이다(Gray, 1987). 더 나아가, 이 이론은 감정을 일으킨 대상(요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감정은 보상추구(reward-seeking)의 행동으로, 부정적인 감정은 위험회피(danger-averting)의 행동으로서 표출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Gray, 1990).

그러나 감정의 효과에 관한 또 다른 이론적 관점인 인지평가이론(cognitive appraisal theory)은 앞선 정서지능이론과 달리 감정을 유발하는 그 맥락에 대한 이해를 더 강조한다. 따라서 이 이론은 긍정 또는 부정으로 구분되는 감정들이 하나의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표출된다고 보지 않는다. 이 이론은 인간이 개인의 감정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 감정에 대응하기 위해 인지적 과정을 수행한다고 본다(Frijda, 1987; Lazarus, 1991). 비록 긍정의 감정은 대체로 일관되게 나타날지 몰라도, 분노와 두려움 등의 부정적 감정은 같은 속성을 가지거나 동일한 행태적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맥락적 차원에서, 부정적 감정은 각각이 초래된 환경(attribution)과 자신이 그것을 통제(control)할 수 있는지에 관한 능력의 평가에 따라 달리 표출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분노는 위협을 초래한 요인이 명확하고 자신이 그 요인을 통제할 수 있을 때 발생하는 반면, 두려움 혹은 걱정은 그 요인이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할 때 나타난다(Ellsworth and Smith, 1985; Tiedens and Linton, 2001; Valentino et al., 2011). 그 결과, 분노는 위험추구(risk-seeking)의 행동으로, 두려움 혹은 걱정은 위험회피(risk avoidance)의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Lerner and Keltner, 2000). 따라서 서구의 여러 정치학 연구들은 긍정적 감정이 대체로 정치참여와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맺지만, 부정적 감정 중에서도 분노는 정치참여와 관련하여 긍정적인 상관성을 가지는 반면, 두려움 및 걱정은 부정적인 관계를 맺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Lazarus, 1991; Valentino et al., 2011; 이강형, 2013). 이와 유사하게, 분노는 전쟁의 위협성에 대한 인식을 줄임에 따라 전쟁을 지지하도록 하는 반면, 두려움은 전쟁의 위협성을 높이는 동시에 전쟁 지지를 약화시킨다(Huddy, Feldman, and Cassese, 2007).

감정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는 성차별주의와 정치적 태도를 살펴보면, 먼저, 적대적 성차별주의가 높을수록 여성이 남성의 지위 및 우월성을 위협한다고 인식할 때,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여성에 대한 적대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Jakupcak, Tull, and Roemer, 2005; Dahl, Vescio, and Weaver, 2015; Cassese and Holman, 2019). 반면, 여성의 열등성이 강조되고 남성의 우월성이 부각될 경우에는, 적대적 성차별주의가 높을수록 분노와 걱정은 줄어드는 반면 오히려 통쾌함 즉 열정의 감정이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의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3: 선거캠페인에서 여성 비하발언을 하는 후보가 있을 때, 적대적 성차별주의가 높을수록 분노와 걱정은 낮아지는 반면, 열정(통쾌함)은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표면적으로 여성에 대한 온화하고 친절한 태도를 견지하기 때문에 여성을 무시하거나 여성에게 해를 가하는 발언 또는 행동에 대해서 부정적 감정을 느낄 수 있다. 그 결과, 선거캠페인에서 여성비하 발언으로 인해 젠더이슈가 부각될 때, 그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감정 즉, 통쾌함 혹은 열정의 감정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러한 태도의 이면에는 그들 역시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는 잠재적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에 마냥 부정적인 반응만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본 연구가 설정한 상황에서처럼, 선거캠페인에서 여성 비하발언으로 젠더이슈가 부각될 때,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높아질수록 걱정스러움을 느끼기는 하겠지만 분노의 감정까지 나아가지는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분노는 자신이 그 요인을 통제할 수 있을 때 발생하는 일종의 적극적인 부정적 감정인 반면, 걱정은 통제가 불가능할 때 나타나는 소극적인 부정적 감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의 두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4-1: 선거캠페인에서 여성 비하발언을 하는 후보가 있을 때,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높을수록 부정감정인 분노와 걱정은 높아지는 반면, 긍정감정인 열정(통쾌함)은 낮아지거나 변하지 않을 것이다.

가설4-2: 선거캠페인에서 여성 비하발언을 하는 후보가 있을 때,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높을수록 소극적인 부정감정인 걱정은 높아지는 반면, 적극적인 부정감정인 분노는 낮아지거나 변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열정(통쾌함) 역시 낮아지거나 변하지 않을 것이다.

Ⅲ. 실험 설계

1. 표본 특성

한국 유권자들이 가진 양가적 성차별주의가 정치적 태도 및 감정적 반응으로 어

떻게 발현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실험설문을 통해 실증적인 분석을 실시한다. 조사는 글로벌리서치를 통해 2020년 7월 14일부터 2020년 7월 21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조사의 대상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유권자를 모집단으로, 글로벌리서치 회사가 보유한 패널 내에서 성별, 연령, 지역을 고려하여 쿼터층화표집(quota-stratified sampling)을 통해 모두 507명의 표본을 선정했다. 그리고 조사 참여자들에게는 참여에 따른 포인트가 지급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따라서 많은 국내외 온라인 조사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의 표본 역시 대표성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할 우려가 존재한다. 특히, 온라인 설문 특성상 남성, 청년층, 고학력자, 고소득자, 그리고 수도권 거주자가 과대 대표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아래의 <Table 1>은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되는 표본의 인구학적 특성을 보여준다. 실제로, 표본의 대표성이 가장 잘 보장되는 전국단위의 조사 중 하나인 한국종합사회조사(KGSS)의 2018년 표본과 비교해보면,²⁾ 본 연구의 표본에서 남성, 청년층과 중장년층, 중산층과 고소득층, 고학력자, 그리고 수도권 거주자가 과대 대표되는 반면, 여성, 노년층, 저소득층, 저학력자, 그리고 비수도권 거주자는 과소 대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표성의 문제 및 일반화의 한계는 거의 모든 경험적 연구가 공히 직면하는 문제이며, 여기에는 단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안도경, 2014). 더욱이, 최근에는 온라인 실험을 통해 확인된 분석결과가 반복 실험을 통해 전국 단위의 표본을 이용한 분석결과와 사실상 차이가 없다는 경험적 증거도 제시된 바 있다(Coppock, 2019). 또한, 본 연구의 목적이 표본을 통해 모집단의 특성을 추정하기보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비교를 주요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대표성의 문제는 다소 약화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의 종속변수에서 표본의 인구학적 집단 간 차이는 성별에서 일부 나타났을 뿐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표본의 특성에 따른 편향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을 확인하였다.³⁾ 또한 실험자극의 무작위 할당에 따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인구학적 특성 역시 동질적이라 할 수 있다.

2) 한국사회과학자료원에서 현재까지 제공된 KGSS 중 가장 최신 자료는 2018년 자료이다. 물론, KGSS 역시 대표성의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단지 본 연구의 표본의 대표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기 위한 하나의 잣대로 활용한다. 본 연구의 표본과 KGSS(2018)의 표본에 대한 비교는 <Appendix 1>에 제시한다.

3) 투표선택과 A당 후보 감정온도계에서 남성과 여성 간 차이가 발견되었으며, 이는 본 연구의 전체 표본과 통제집단의 표본에서 동일하게 확인되었다. 이에 대한 통계검정의 결과는 <Appendix 2>에 제시한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ample (N, %)

		Total sample	Treatment group	Control group
Gender	Male	255(50.30%)	119(46.67%)	136(53.97%)
	Female	252(49.70%)	136(53.33%)	116(46.03%)
Age group	20s	92(18.15%)	47(18.43%)	45(17.86%)
	30s	110(21.70%)	54(21.18%)	56(22.22%)
	40s	114(22.49%)	55(21.57%)	59(23.41%)
	50s	106(20.91%)	58(22.75%)	48(19.05%)
	60s≤	85(16.77%)	41(16.08%)	44(17.46%)
Income ⁴⁾	Low	59(11.64%)	29(11.37%)	30(11.90%)
	Middle	252(49.70%)	131(51.37%)	121(48.02%)
	High	196(38.66%)	95(37.25%)	101(40.08%)
Education	High school ≥	119(23.47%)	62(24.31%)	57(22.62%)
	College	340(67.06%)	167(65.49%)	173(68.65%)
	Graduate ≤	48(9.47%)	26(10.20%)	22(8.73%)
Region	Seoul	117(23.08%)	64(25.10%)	53(21.03%)
	Gyeonggi·Incheon	166(32.74%)	80(31.37%)	86(34.13%)
	PK	73(14.40%)	40(15.69%)	33(13.10%)
	TK	50(9.86%)	28(10.98%)	22(8.73%)
	Honam	42(8.28%)	18(7.06%)	24(9.52%)
	Chungcheong·Sejong	42(8.28%)	17(6.67%)	25(9.92%)
	Gangwon·Jeju·Others	17(3.35%)	8(3.14%)	9(3.57%)
	Total	507(100.0%)	255(100.0%)	252(100.0%)

2. 실험 절차

실험의 주요 목적은 선거캠페인에서 특정 후보의 성차별적 발언에 따라 젠더이슈가 부각되었을 때, 유권자들이 가진 양가적 성차별주의의 경향이 정치적 및 감정적 태도로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조사는 먼저 온라인 링크를 통해 참여자들에게 조사에 대한 소개 및 연구윤리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제공했으며, 성실한 답변을 위한 안내문을 읽도록 설계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참여에 동의하는지를 묻는 문항에 동의함으로써 조사가 시작되었다. 가장 먼저, 성별, 연령, 거주지역에 관한 기본적인 인구학적 정보를 묻는 문항을 시작으로, 참여자들의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를 측정했다.

이어서, 참여자들에게 무작위로 두 가지 서로 다른 가상의 신문 기사를 제공했다.

4) 소득의 정치적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를 따라서(권혁용·한서빈, 2018), 여기서는 200만원 미만을 저소득층, 2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을 중산층, 그리고 500만원 이상을 고소득층으로 분류했다.

첫 번째 기사는 가상의 정당과 후보인 A당의 송의섭 후보가 여성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된 기사로서, 이를 통해 선거캠페인에서 젠더이슈가 부각되도록 설계했다(실험집단). 두 번째 기사는 21대 총선 후보자들의 전과기록에 대한 기사이다(통제집단). 특히, 여기서 후자의 기사를 전과기록으로 선정한 이유는 전자의 기사가 가진 부정적인 톤(negative valence)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즉, 두 기사의 전반적인 톤이 참여자들의 이후 응답에 미칠 영향력을 통제하고자 했다.⁵⁾ 또한 앞서 소개된 대로, 조사가 진행된 기간(2020년 7월)이 21대 총선(2020년 4월)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21대 총선의 상황을 가정함으로써 비록 가상의 상황일지라도 참여자들에게 최대한의 현실성을 제공하고자 했다. 따라서 아래의 <Figure 1>에 제시된 각각의 실험집단 기사와 통제집단 기사는 실제 언론의 기사를 일부 각색하여 사용한 것이다.⁶⁾

-
- 5) 여기서 여성비하 발언 기사와 전과기록 기사가 동일하게 부정적인 톤을 가질지라도, 양자 간 비대칭성에 대한 지적이 존재할 수 있다. 즉, 전자의 경우 특정 후보(A당 송의섭)가 직접적으로 지칭된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총선 후보들의 전반적인 전과기록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특정 후보(B당 조갑연)를 지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험연구에서 주된 관심은 통제집단이 아닌 실험집단이다. 말하자면, 본 연구는 성차별주의의 효과가, 여성비하발언을 하는 후보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 비해서 그러한 후보가 “존재하는 상황”일 때, 어떻게 나타는지 분석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따라서 통제집단에 가상적으로 부여된 전과기록 기사는 성차별적인 후보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지, 전과기록 기사의 효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비대칭성은 본 연구의 실험과정에서 큰 왜곡을 가져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Snideman, 2011).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주신 심사자에게 감사드린다.
- 6) 본 연구에서와 같이 실제 언론기사를 각색할 경우, 실험 참여자들에게 현실적인 정치적 상황을 제공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선거가 치러진 후 얼마 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험자극으로서의 기사가 현실정치에 특정 후보를 떠올리게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정치적 현실성 제공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부정적 효과보다 더욱 크다고 판단하여 연구를 진행했다. 이러한 실험자극의 채택이 가져올 부정적 효과를 지적해주신 심사자에게 감사드린다.

<Figure 1> Experimental Manipulations

A당 송의섭, 여성비하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설거지는 여자가 하는 일, 남자한테 시키면 안 돼” 막말
“젠더폭력이 뭐냐” 무지 드러내기도
최근 “여자는 밤에 쓰는 용도라고 발언했다” 주장까지 나와

21대 총선에서 우리 지역에 출마한 A당 송의섭 후보가 여성비하 논란에 휩싸였다.

한 여성 의원은 지난 주 기자들에게 “막말을 송의섭 후보가 하고 있다. 나에게 주모라고 하고 최고위 원회의 전엔 ‘여자라면 조용히 앉아있어야 하고, 밤에만 쓰는 것이 여자의 용도’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송 후보는 “나는 16년 정치활동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성희롱 발언을 한 일도 없고 성희롱으로 구 설수에 오른 일도 없다”고 반박했다.

송 후보는 “단 한번도 성희롱 발언을 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그가 막말과 여성비하 논란으로 구 설수에 오른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그는 여성혐오 발언을 농담으로 돌리거나, 왜곡된 성 역할 고정관 념을 거침없이 표현하는 식으로 수 차례 낮은 젠더 감수성을 드러낸 바 있다.

지난 2010년 우리 지역의 한 대학교 강연에서는 “아내도 한 명보다 두 명이 낫다”, “화류계” 등 국회의 원으로서의 적절치 못한 발언을 했다는 비판을 사기도 했다. 송 후보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여성단체 들은 송 후보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논란은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는 모습 이다.

A. Treatment Group News Article⁷⁾

21대 총선 후보 전과기록 36.8%... 최대 전과 10범까지

후보등록 마감... 전체 1052명 중 387명이 전과자
정당별 순으로 B당, A당 순
음주운전, 사기, 살인 등 강력범죄 저지른 후보까지

21대 총선 후보등록 마감일인 3월 27일 현재 후보자의 36.8%가 전과가 있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오후 7시까지 후보 등록 수리가 완료된 후보자 1052명 중 전과를 보유한 후보자는 38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총선에서는 전과 10범과 9범이 각각 1명씩, 8범이 3명, 7범이 6명, 그리고 5범은 15명 씩이었다. 4범은 20명, 3범은 35명이었고 재범과 초범은 각각 84명과 217명씩이었다.

지역별로 경기도가 86명으로 최다를 기록했고, 서울 63명, 경남 32명, 부산 27명, 대구 22명, 전북 20명 순이었다. 정당별로는 B당이 68명, 그리고 A당은 64명을 기록했다.

음주운전, 사기, 공직선거법 위반 등 도덕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물론이고 살 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후보도 있다. 경남 지역에 출마한 갑 후보는 살인 전과가 1건 있었고, 전북 지역에 출마한 을 후보는 존속상해 전과 1건이 확인됐다. 경기 지역에 출마한 병 후보는 음란물유포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기록이 있었다.

B. Control Group News Article⁸⁾

7) 여성신문(2018.01.02.):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8790>

8) 연합뉴스(2020.03.27.): <https://www.yna.co.kr/view/AKR20200327186300001>

3. 변수 측정

정치적 태도 및 감정으로서 발현되는 성차별주의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한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두 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첫 번째 범주는 정치적 태도로서, 이는 가상의 두 후보(A당 후보, B당 후보)에 대한 투표선택과 각각의 후보에 대한 감정온도계를 통해 측정한다. 이를 위해, 조사 참여자들은 앞서 소개된 무작위의 신문 기사를 읽고 나서, 아래 <Figure 2>와 같이 양자대결의 경쟁 하에서 가상의 두 후보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았다.

<Figure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두 후보의 인적사항은 매우 유사하게 설계되었다. 이는 선거경쟁에서 한국 유권자들의 투표선택 및 정치적 선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별, 연령, 학력, 직업 및 경력의 차이에 따른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전용주, 2019; 강주현, 2020; 노기우·이현우, 2020), 실험조건에 의해 선거캠페인에서 젠더이슈가 부각되었을 때 성차별주의가 어떻게 정치적 태도로서 발현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투표선택은 “아래(Figure 2)는 이번 21대 총선에서 귀하의 지역구에 출마한 두 후보의 기본 인적사항입니다.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귀하는 누구에게 투표를 하시겠습니까?”의 문항을 통해 측정되었으며, A당 후보를 선택할 경우 1의 값을, B당 후보를 선택할 경우 0을 부여했다. 다음으로, 두 후보에 대한 감정온도계는 “귀하가 아래의 정치인을 얼마나 좋아하는지에 대한 느낌을 0에서 100도까지의 온도로 표시해주십시오(0은 대단히 부정적이며, 100은 대단히 호의적임을 뜻합니다).”의 문항을 통해 측정했다. 따라서 투표선택은 이항 로짓 모델(binary logit model)을, 감정온도계는 OLS(ordinary least square)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Figure 2> Candidates Information

A당 송의섭

- 성별: 남성
- 생년월일(세): 1957. 04. 10. (63세)
-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 직업: 정치인
- 경력: (전) 판사
(전) 제62대 법무부장관

B당 조갑연

- 성별: 남성
- 생년월일(세): 1959. 12. 15. (60세)
-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 직업: 정치인
- 경력: (전) 검사
(전) 제39대 검찰총장

종속변수의 두 번째 범주는 감정적 반응이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성차별주의는 하나의 심리적 성향이기 때문에 여성비하 발언으로 선거캠페인에서 젠더이슈가 부각되었을 때, 그것의 심리적 결과로서 감정적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감정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따라서(Frijda, 1987; Lazarus, 1991; Valentino et al., 2011; Cassese and Holman, 2019), 긍정적 감정으로서 열정(enthusiasm), 그리고 부정적 감정으로서 분노(anger)와 두려움(fear)을 통해 감정적 반응을 분석한다. 조사 참여자들은 무작위로 할당된 신문 기사를 읽은 뒤, “귀하가 앞의 기사를 읽으면서 가졌던 감정들에 대해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항을 통해 ‘화가 난다’, ‘언짢다’, ‘역겹다’(이상 분노, $\alpha=0.88$), ‘걱정된다’, ‘두렵다’, ‘불안하다’(이상 두려움, $\alpha=0.86$), 그리고 ‘통쾌하다’, ‘뿌듯하다’, ‘희망적이다’(이상 열정, $\alpha=0.91$)의 감정을 느낀 정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의 5점 척도로서 응답했다. 실제 분석에서는 세 가지 감정적 반응의 각각의 하위 문항들을 평균값으로서 포함하였다. 따라서 감정에 대한 통계분석은 OLS를 이용한다.

이어서,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양가적 성차별주의이다. 성차별주의의 측정은 국내의 선행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이용된 문항을 활용하였다(Ratliff et al., 2019; Cassese and Holman, 2019; 안상수 외, 2005; 오주령·박지선, 2019). 먼저, 적대적 성차별주의는 다음의 세 가지 문항을 통해 측정되었다: 1) “대부분의 여성들은 남성들이 그들에게 베푸는 것들에 대해 감사할 줄 모른다.”, 2) “여성들은 남성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권력을 추구하려 한다.”, 3) “대부분의 여성들은 남성들의 일반적인 발언이나 행동까지도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고 매도한다.”(이상 적대적 성차별주의, $\alpha=0.82$). 그리고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다음의 세 가지 문항을 이용하였다: 1) “여성들은 남성들에 의해서 소중히 여겨져야 하며, 보호받아야 한다.”, 2) “많은 여성들은 남성들이 가지지 못한 순수함(순결함)을 가지고 있다.”, 3) “좋은 여성이 되기 위해서는 남편의 뒷받침이 필요하다.”(이상 온정적 성차별주의, $\alpha=0.75$). 조사 참가자들은 각각에 대해 ‘매우 반대’(1)에서 ‘매우 동의’(5)까지의 5점 척도로서 응답했으며, 실제 분석에서는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를 구성하는 각각의 문항들을 평균값으로 포함했다.

끝으로, 통제변수로서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그리고 거주지역 등 인구학적 변수들을 포함하였다. 성별은 여성을 1, 남성을 0으로 코딩했으며, 연령은 10세 단위로 2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5개 집단으로 구분했다. 교육수준은 고졸이하, 대졸 및 대졸, 그리고 대학원 이상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가구소득으로 측정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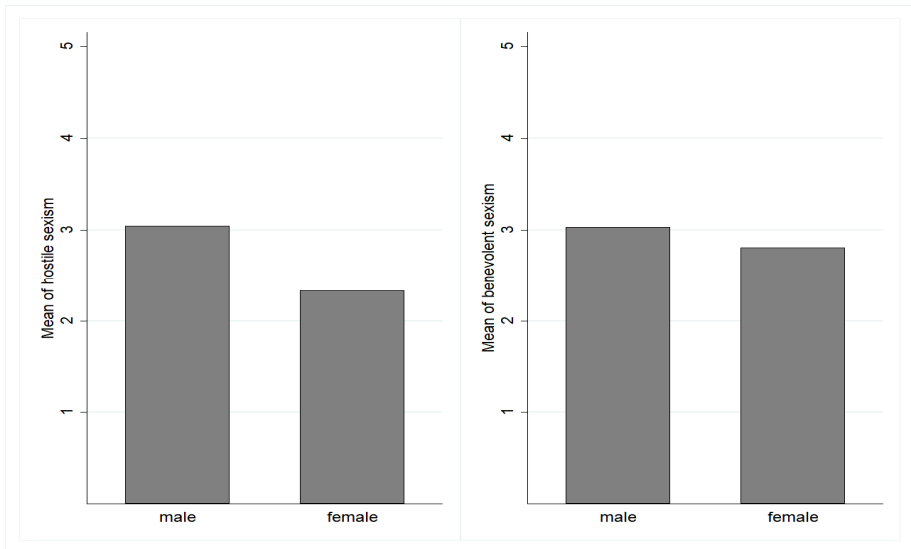
소득수준은 ‘소득 없음’부터 100만원 단위로 ‘1000만원 이상’까지의 12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거주지역은 서울과 인천·경기의 수도권과, 영남, 호남, 그리고 기타 지역으로 구분했다. 본 연구의 분석에 포함된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은 <Appendix 3>에 제시한다.

IV. 분석결과

1. 기술 분석

본격적인 통계분석에 앞서, 조사 참여자들의 성별과 양가적 성차별주의 간 관계를 먼저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성차별주의의 태도는 남성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우월감과 남성우위의 사회문화적 영향으로 인해 여성들보다 남성들에게서 더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는 국내외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패턴으로서(Cassese and Holman, 2019; 안상수 외, 2005; 김혜숙 외, 2005; 안미영 외, 2005), <Figure 3>에서 처럼 본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된다. 좌측 그래프는 남성과 여성 간 적대적 성차별주의의 차이를 보여주며, 우측 그래프는 온정적 성차별주의의 차이를 보여준다. 먼저, 적대적 성차별주의에서 남성은 3.04의 평균값을 보이는 반면 여성은 2.32의 평균값을 보이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다($t=9.5317, p=0.0000$). 또한, 비록 남성과 여성 간 그 격차가 줄어들기는 하지만, 온정적 성차별주의에서도 남성은 3.03의 평균값을, 그리고 여성은 2.80의 평균값을 가진다. 그리고 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확인된다($t=2.9703, p=0.0031$). 따라서 일반적인 통념과 같이, 전반적으로는 여성보다 남성이 두 유형 모두에서 높은 성차별주의 성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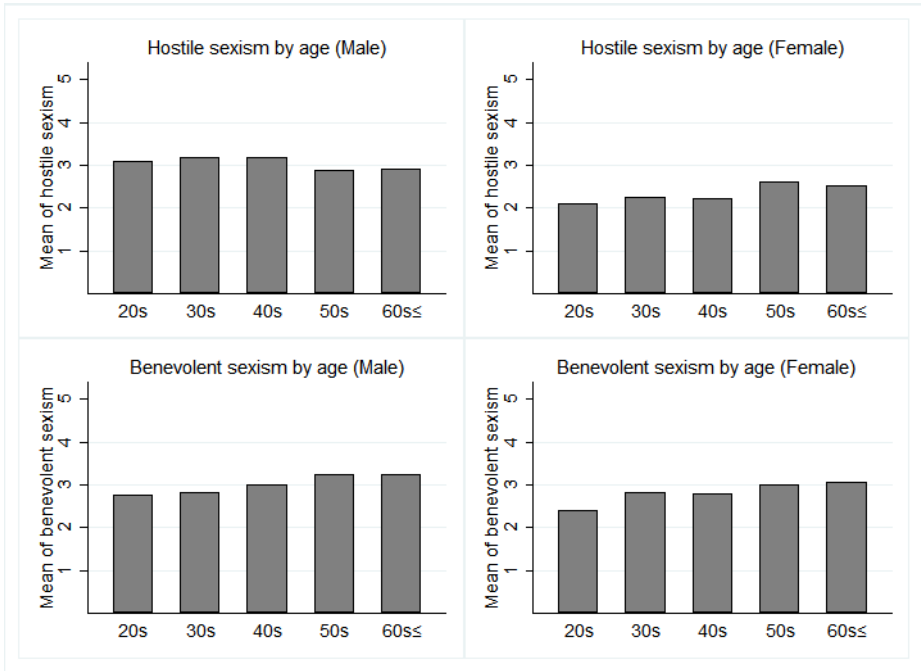
<Figure 3> Gender and Sexism



그러나 이것이 곧 남성이 반드시 높은 성차별주의 성향을 가지는 반면, 여성은 반드시 낮은 성차별주의 성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앞서 이론적 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스템 정당화 이론은 기존의 사회구조로 인해 이익을 받은 집단뿐만 아니라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은 집단에게서도 현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선호를 보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고정적인 성역할 혹은 성차별주의의 맥락에서 일반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집단이 여성일지라도, 여성들 중에서도 적대적 혹은 온정적 성차별주의 성향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남성들 중에서도 성차별주의의 성향이 낮게 나타날 가능성도 분명 존재한다.

이러한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Figure 4>는 성별과 연령에 따른 성차별주의의 수준을 보여준다. 좌측의 두 그래프는 남성, 우측의 두 그래프는 여성들 사이에서 연령집단에 따른 성차별주의 수준을 보여준다. 또한, 상단의 두 그래프는 적대적 성차별주의를, 하단의 두 그래프는 온정적 성차별주의를 보여준다. 앞선 <Figure 3>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여성들보다 남성들 사이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성차별주의 성향이 발견된다. 그러나 동일한 성별 내에서도 연령집단에 따라 상이한 수준의 성차별주의가 발견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4> Gender, Age, and Sexis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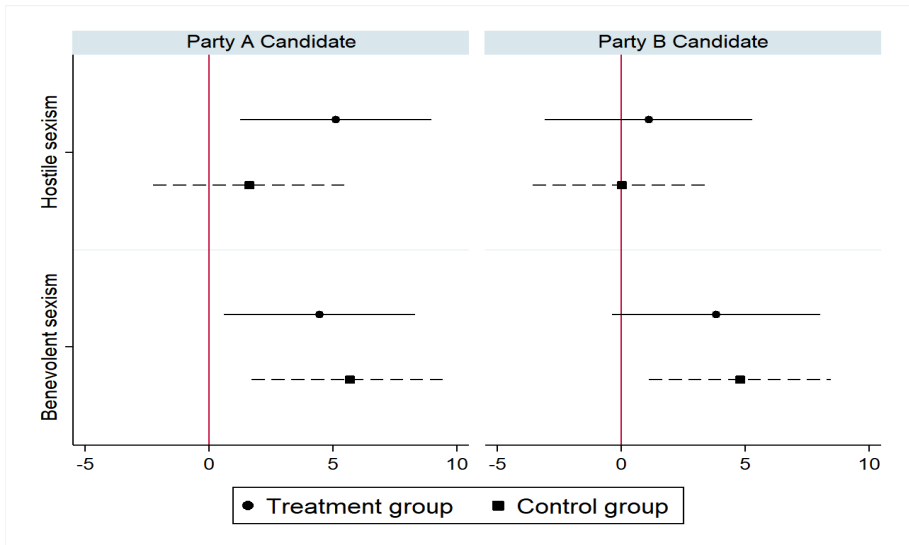
먼저, 좌측 상단의 그래프는 50~60대 남성들보다 20~40대 남성들 사이에서 적대적 성차별주의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보여준다($F=1.91, p=0.1091$). 한편, 우측 상단의 그래프에 따르면, 여성은 모든 연령에서 적대적 성차별주의의 값이 3미만으로 나타남에 따라 남성에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적대적 성차별주의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50~60대 여성들이 20~40대 여성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같은 성별 내 연령집단 간 차별성에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F=2.75, p=0.0287$). 다음으로, 온정적 성차별주의를 살펴 보면, 동일연령 집단 간 비교할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미약하게나마 여전히 더 높은 값을 가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동시에 성별 내 연령 집단 간 차이도 확인된다. 특히,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젊은 여성들보다 50~60대의 여성들에게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F=3.60, p=0.0071$). 요컨대, 일반적 통념에서와 같이 여성들보다 남성들에게서 양가적 성차별주의 경향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같은 성별 내에서도 연령에 따라 성차별주의 정도가 차별적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즉, 기술 분석의 결과는 시스템 정당화 이론의 논리처럼 여성일지라도 성차별주의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으며, 또한 남성 역시 반드시 높은 수준의 성차별 태도를 가지는 것

은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는 아래의 통계분석에서 정치행태 및 태도에 대한 성차별주의의 효과가 성별을 통제하더라도 나타날 수 있음을 기대하도록 한다.

2. 성차별주의와 정치적 태도

선거캠페인에서 젠더이슈가 부각될 때, 성차별주의가 정치적 태도로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아래의 <Figure 5>에 제시되어 있다. 앞서 소개된 대로, 통제집단은 총선 후보자들의 전과기록에 관한 기사에 노출된 이후에, 그리고 실험집단은 정치엘리트(A당 후보)의 여성비하 발언에 대한 기사에 노출된 이후 A당 후보와 B당 후보 각각에 대한 감정온도계와 두 후보 사이의 투표선택 문항에 응답했다.

<Figure 5> Sexism and Candidate Evaluation



Note: Dots are estimated coefficients, and lines are 95% confidence intervals.

먼저 <Figure 5>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좌측의 A당 후보에 대한 감정온도계 모델에서, 후보자들의 전과기록에 대한 기사를 접한 통제집단의 응답자들과는 달리, 정치엘리트의 여성비하 발언에 관한 기사를 접한 실험집단의 응답자들 사이에서는 적대적 성차별주의가 높아질수록 여성비하 발언을 한 A당 후보에게 더욱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여성비하 발언 기사가 A당 후보에 대한 태도 변화에 큰 차이를 가져오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한편, 우측의 B당 후보 감정온도계 모델을 살펴보면, 적대적 성차별주의는 실험자극과 무관하게 B당 후보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그러나 통제집단에서 B당 후보에 대한 호감도와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실험집단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상실한다. 즉, A당 후보의 여성비하 발언 기사에 노출되었을 때,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더 이상 B당 후보의 호감도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함을 의미한다.⁹⁾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자면, A당 후보 호감도에 대한 적대적 성차별주의의 영향력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사이에서 그 차이가 뚜렷이 확인된다. 즉, 통제집단에서는 적대적 성차별주의가 A당 후보의 감정 온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실험집단에서는 적대적 성차별주의가 한 단위 증가함에 따라 A당 후보에 대한 감정 온도가 약 5도씩 높아진다. 그러나 적대적 성차별주의는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에서 공통적으로 B당 후보의 감정 온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 말하자면, 본 연구의 *가설*에서처럼, 정치엘리트에 의해 선거캠페인에서 성차별 혹은 젠더이슈가 부각될 때 적대적 성차별주의가 높을수록 그러한 성차별적 발언을 한 후보를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선거캠페인에서 젠더가 부각되지 않는다면, 적대적 성차별주의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와 반대로,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다소 흥미로운 패턴을 보인다.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A당 후보의 감정 온도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지만, B당 후보의 감정 온도를 봤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던 통제집단에서의 긍정적 영향력이 실험집단에서 사라진다. 다시 말해,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달리,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높아질수록 성차별적 발언을 한 후보를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적극적 태도보다 오히려 그 경쟁 후보에 대한 호감도를 감소시킴으로써 소극적으로 성

9) 한편, 추가적으로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 간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실험집단의 B당 후보에 대한 감정온도계 모델에서 95% 신뢰수준의 부정적인 상호작용 효과가 발견되었다. 즉, 온정적(적대적) 성차별주의가 낮을 때에만(구체적으로 2미만일 때), 적대적(온정적) 성차별주의의 B당 후보 호감도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확인된 것이다. 그 외, 본 연구의 모든 분석모델에서는 두 가지 성차별주의 간 상호작용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한 제언을 주신 심사자에게 감사드린다.

차별주의에 동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다. 이는 앞선 가설2-1보다 가설2-2의 기대에 좀 더 부합한다. 즉,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여성에 대해 온화하고 친절한 태도를 보이는 등 표면적으로는 비차별주의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마찬가지로 여성을 종속적인 혹은 열등한 존재로 바라보는 관점이 내재되어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그러나 이는 여성비하 발언을 한 A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높이기보다 상대후보인 B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감소시켰다는 점에서 직접적이지 않고 간접적인 증거라는 점에서 해석의 주의를 요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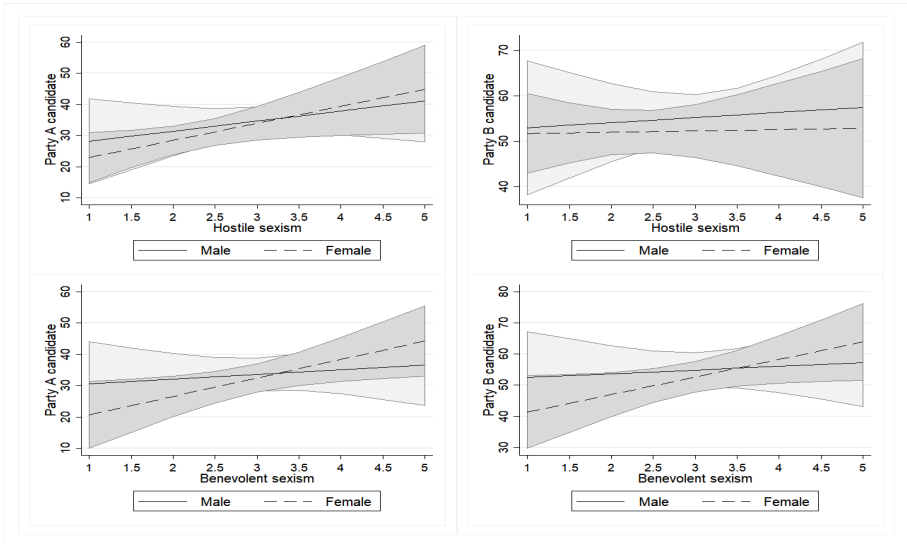
이어서, <Figure 5>에서 보고되지는 않았으나, 두 후보자 사이에서의 투표선택 모델에서는 양가적 성차별주의의 영향력이 확인되지 못하였다(<Appendix 4> 참조).¹⁰⁾ 투표선택 모델에서 성차별주의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그것의 효과가 감정 온도 모델에서 나타났음을 고려했을 때, 성차별주의가 감정적 반응을 유발함으로써 정치엘리트에 대한 태도 및 평가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정치행태로서의 투표선택을 결정지을 만큼 강력한 요인이 아닐 가능성을 내포한다. 또는 본 연구가 남성후보와 여성후보 간 경쟁이 아니라 남성후보들 간 경쟁을 가정했기 때문에, 성차별주의의 효과가 투표선택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끝으로, 정치적 태도에 대한 감정온도계 및 투표선택 모델에서 포함된 통제변수들에 대해 간략히 언급한다(<Appendix 4> 참조). 실험연구에서 통제변수의 포함과 관련된 논쟁이 존재하지만(Freedman, 2008; Lin, 2013), 본 연구에서는 통제변수를 포함한 분석결과를 부록에 제시한다.¹¹⁾ 앞서 소개된 대로, 성별·연령·지역별 할당에 따라 표본을 추출하였기 때문에 이 변수들의 통계적 유의성은 대체로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A당 후보의 감정온도 모델에서, 교육은 통제집단에서 유의미한 수준의 부정적 효과를 발휘했으나 실험집단에서는 그 유의성을 상실했다. 반면, 소득의 경우, 통제집단에서는 B당 후보의 감정온도계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실험집단에서 유의미한 수준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이는 정치엘리트의 성차별적 발언으로 젠더이슈가 부각될 때,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이에 대한 반응으로서 성차별적 발언을 한 후보의 경쟁후보에 대한 선호를 증가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10) 부록에 제시되어 있듯이 본 연구에서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내에서 각각 성차별주의의 효과를 분석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 심사자께서는 실험자극(treatment)과 성차별주의의 상호작용 항을 활용할 것을 제안해주셨다. 이는 타당한 지적이며, 현재 분석모델의 채택은 단지 분석결과의 해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밝힌다. 실제로, 상호작용 항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더라도 현재 제시된 결과와 질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11) 부록에 보고된 회귀분석의 결과는 통제변수들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큰 차이가 없음을 밝힌다.

<Figure 6> Sexism and Candidate Evaluation: Conditional Effect of Gender (Treatment Group)



Note: The figure is from interaction models in <Appendix 5>. Y-axis is the predicted value of each dependent variable across different levels of hostile and benevolent sexism. Shaded areas mark 95% confidence interva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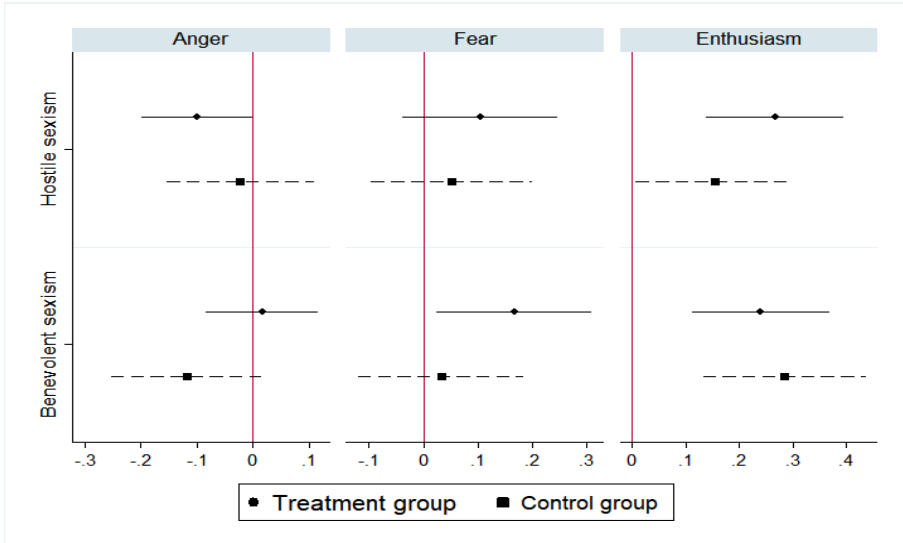
한편, 이러한 발견이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고려하여 성차별주의와 성별 간 상호작용을 포함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해보았다. <Figure 6>는 이에 대한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보듯이,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했을 때 성차별주의의 변화에 따른 두 후보자의 감정 온도의 변화는 남성과 여성에게서 차별적이지 않았다. 따라서 여기서의 분석결과는 앞선 기술 분석에서처럼, 선거캠페인에서 젠더이슈가 부각되었을 때 발현되는 성차별주의의 정치적 효과가 성별과 독립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3. 성차별주의와 감정

여기서는 성차별주의 태도가 가져오는 감정적 효과를 살펴본다. 앞서 언급한 대로, 감정은 전통적으로 정치학에서 주된 연구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감정의 정치적 효과가 국내외 연구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다는 점에서(이강형, 2013; 민희·윤성이, 2016; Valentino et al., 2011; Ellithorpe et al., 2019), 선거캠페인에서의 젠더

이슈 부각에 따른 성차별주의의 감정적 효과를 살펴보는 작업은 일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성차별주의의 감정적 반응에 대한 분석결과는 아래의 <Figure 7>에 제시되어 있다.

<Figure 7> Sexism and Emotion



Note: Dots are estimated coefficients, and lines are 95% confidence intervals.

<Figure 7>의 결과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의 다소 다른 특성이 명확히 두드러진다. 먼저, 분노 모델에서 정치엘리트의 성차별적 발언에 관한 기사를 접했을 때, 적대적 성차별주의가 높아질수록 분노의 감정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통계집단과 분명히 차별적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온정적 성차별주의의 경우,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통계집단에서의 음의 회귀계수가 실험집단에서 양의 회귀계수로 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두려움의 감정과 관련하여, 적대적 성차별주의는 실험처치에 따른 차별성이 두드러지지 않지만, 온정적 성차별주의의 차별성은 명확히 확인된다. 즉, 성차별 발언의 기사를 접했을 때, 두려움 또는 걱정의 감정이 높아졌다. 끝으로, 긍정적 감정인 열정 모델에서 적대적 성차별주의는 실험처치에 따른 통계적 유의성의 차이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실질적 유의성을 고려하면, 실험집단에서 그 효과가 다소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차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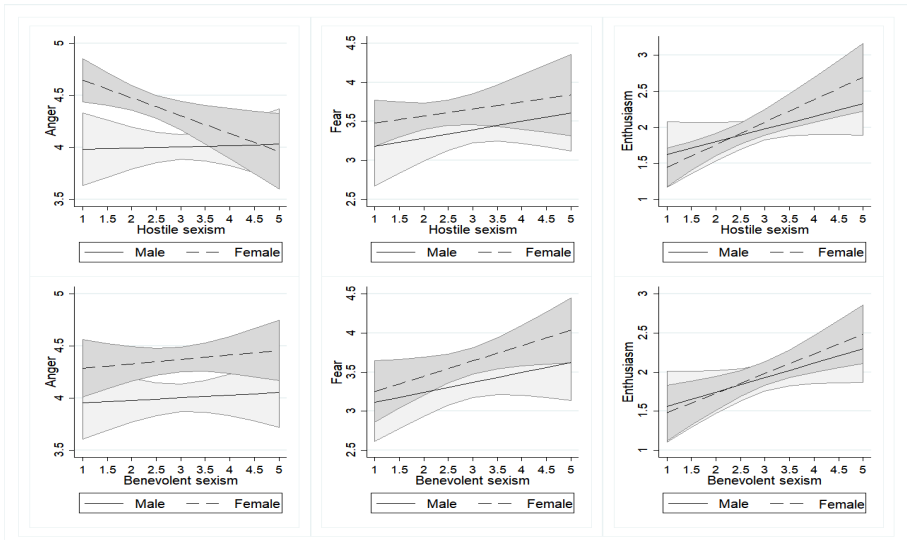
두드러지지는 않는다.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해보면, 먼저, 선거캠페인에서 정치엘리트가 성차별적 발언을 통해 남성 우월감을 내세웠을 때, 적대적 성차별주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감정인 분노는 감소하는 반면 긍정적인 감정인 열정은 증가하는 것이 뚜렷이 확인된다. 이는 *가설3*의 기대에 상응하는 발견이다. 구체적으로, 실험집단에서 분노의 감정은 적대적 성차별주의가 한 단위 증가함에 따라 약 0.1점 낮아지는 반면, 열정은 약 0.3점 높아지는 등 긍정적 감정의 변화폭이 부정적 감정의 변화폭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그들 역시 선거캠페인에서 젠더가 부각되지 않을 때는, 감정적 반응이 사실상 나타나지 않는다.

흥미롭게도,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다소 대조적인 패턴을 보인다. 이론적 기대에서와 같이, 선거캠페인에서 성차별적 발언으로 젠더이슈가 부각되었을 때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분노의 감정까지 나아가지는 않고 두려움 혹은 걱정스러움의 감정을 증가시킨다. 즉, 실험집단에서 두려움/걱정의 감정은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한 단위 늘어남에 따라 약 0.2점 높아진다. 열정의 감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지만,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과 차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실험자극 즉 정치엘리트의 성차별적 발언으로 인한 결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요컨대, 이는 *가설4-1*보다 *가설4-2*에 더욱 부합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본문에 보고되지는 않았으나 성차별주의의 감정적 효과 모델에 포함된 통제변수들은 앞선 감정온도계 및 투표선택 모델에서와 달리 다소 흥미로운 패턴을 보여준다(<Appendix 6> 참조).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분노 모델과 두려움/걱정 모델에서 성별 쿼터가 반영된 표본임에도 성별은 실험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발휘한다. 즉, 남성에 비해 여성 응답자들이 성차별주의 기사로 인해 분노의 감정과 두려움의 감정을 더 느낀 것이다. 또한, 소득수준 역시 주목할 만하다. 열정 모델에 따르면, 통제집단에서는 그 효과가 유의미하지 못했으나 실험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정적 효과를 발휘했다. 이는 앞선 감정온도계 및 투표선택 모델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치엘리트의 성차별적 발언으로 젠더이슈가 부각될 때,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적 감정이 감소하는 것을 시사한다.

<Figure 8> Sexism and Emotion: Conditional Effect of Gender (Treatment Group)



Note: The figure is from interaction models in <Appendix 7>. Y-axis is the predicted value of each dependent variable across different levels of hostile and benevolent sexism. Shaded areas mark 95% confidence intervals.

한편, 본 연구의 표본추출이 성별에 따른 할당을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도 분석에서와 달리 감정적 반응 분석에서는 성별이 실험집단에서 유의미하게 확인되었다. 따라서 <Figure 8>은 감정적 반응에 대한 성차별주의의 효과가 남성과 여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실험집단 내에서 성차별주의와 성별 간 상호작용 효과의 결과를 시각화한 것이다. 그림에 따르면, 두려움/걱정과 열정 모델에서는 성별의 조건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분노 모델에서는 성별에 따른 조건효과가 확인된다. 특히, 좌측 상단의 그래프를 보면, 남성들 사이에서는 적대적 성차별주의의 변화에 따른 분노 감정의 변화가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러나 같은 그래프에서 여성의 경우, 적대적 성차별주의가 높아짐에 따라 분노의 감정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분노 모델에서 온정적 성차별주의 역시 일부분에서 남성과 여성 간 차이가 확인되지만 그 패턴이 일관되지 못하기 때문에 성별에 따른 차별성으로 보기는 어렵다.

V. 결론

본 연구는 선거캠페인에서 정치엘리트의 여성비하 발언으로 성차별 혹은 젠더이슈가 부각되었을 때, 개개인에게 내재된 성차별주의 성향이 정치적 및 감정적 결과로서 어떻게 발현되는지 분석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성차별 이슈가 선거캠페인에서 부각될 경우, 적대적 성차별주의가 높을수록 성차별 발언을 한 후보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동일한 상황에서,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높아질수록 그 후보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기보다, 경쟁후보에 대한 호감도가 낮아지는 패턴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두 후보에 대한 양가적 성차별주의의 효과가 투표선택을 결정지을 만큼의 강력한 요인은 아니었다. 또한 같은 상황에서, 감정적 반응으로서 적대적 성차별주의가 높을수록 분노 감정은 낮아지는 반면 열정 감정은 높아지는 것이 뚜렷이 확인되었다. 반대로,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높아질 경우에는 오직 두려움 및 걱정스러움의 수준이 높아졌다.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표면적으로는 다소 다른 양태로 발현될 수 있지만, 정치영역에서 본질적으로 유사한 성질을 공유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감정적 반응에서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의 효과는 다소 대조적인 측면이 존재하지만, 정치적 태도에서 두 유형의 성차별주의는 모두 성차별 발언을 한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를 초래했다. 다만, 그것의 표출방식이 적대적 성차별주의는 적극적인 반면,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소극적으로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자는 직접적으로 성차별주의를 지지함으로써 이를 정치적 선호로서 드러내며, 후자는 간접적으로 이에 동조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물론, 여기서 온정적 성차별주의의 효과는 직접적 증거에 근거하기보다 간접적 증거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후속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시스템 정당화 이론의 논리에 따르면, 사회 구성원들은 사회 시스템의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경로의존적인 선호체계를 가진다. 더욱이, 그러한 선호는 그들의 일상적 그리고 사회적 영역에서의 사고 및 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의 발견은 한국사회에서 전통적인 남성과 여성 간 위계적 관계에 대한 인식으로 형성된 성차별주의가 정치적 영역에서도 발휘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정치엘리트의 여성비하 또는 성차별 발언은 유권자들에게 잠재되어 있던 성차별주의 성향을 자극시킬 수 있으며, 더 중요하게는, 그것이 정치적 선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치엘리트의 메시지가 대중의 정치적 인식 및 관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고려해볼 때(Zaller, 1991), 선거캠페인에서 성차별주의의 부각은 유권자들을 기존의 대의민주주의 이론이 기대하는 합리적 유권자가 아닌 비합리적인(특히, 전통적인 성별 위계적 인식에 사로잡힌) 유권자로 변모시킬 우려가 존재한다(e.g. Achen and Bartels, 2017).

최근 한국정치에서 여성정치인의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그들의 정치적 역할도 커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정치엘리트에 의해 유권자들 사이에서 성차별주의 인식이 만연해질 경우, 여성정치인이 선거경쟁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비록 본 연구의 실험결과에서는 남성 후보들 간 경쟁을 가정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지만, 후속연구에서는 여성 후보자의 출마가 성차별주의적인 유권자들의 투표 선택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더욱이, 최근 주요 대선후보들의 여성비하 발언이나 ‘페미니스트 대통령’ 등의 발언은 실제로 유권자들 사이에서 성(성평등)인식 혹은 더 나아가 성차별주의 인식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¹²⁾ 그리고 이는 잠재되어 있던 성차별주의를 통해 비이성적 논쟁으로 표출되기도 했다. 규범적인 논의를 차치하더라도, 본 연구의 경험적 발견은 실제로 성차별주의가 유권자들의 정치적 선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따라서 이는 대의정부에 핵심적인 반응성과 책임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을 시사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 과제를 제시한다. 먼저, 심리적 차원에서 성차별주의가 가져오는 정치적 및 감정적 효과를 밝힌 것이 연구의 의의가 될 수는 있으나, 기존의 정치행태 연구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졌던 정치이념이나 정당일체감(Campbell, Converse, Miller, and Stokes, 1960; Bartels, 2002), 또는 회고적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경제평가나 현 정부에 대한 평가 등을 함께 고려하지 못했다(Key, 1966). 따라서 정치적 태도를 형성하는 기존의 정치적 변수들과 비교했을 때, 심리적 성향으로서의 성차별주의가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련 문항들을 모두 포함한 설문자료를 이용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유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한국적 맥락에서 양가적 성차별주의의 측정지표 개발과 더불어, 그것의 정치적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이용된 문항을 활용하였다

12) 페미니즘(feminism)이라는 표현 그 자체 혹은 그것이 담고 있는 내용이 여성이나 남성을 비하하는 것은 전혀 아니며, 이는 충분히 공론화될 필요가 있다. 다만, 여기서는 주요 대선후보의 그러한 발언이 급진적인 페미니스트들과 반(anti)페미니스트를 자극함에 따라 성차별주의 성향이 그들의 정치적 태도 및 선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Ratliff et al., 2019; Cassese and Holman, 2019; 오주령·박지선, 2019). 그리고 연구결과는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비록 감정 영역에서 다소 대립적인 효과를 보였음에도, 정치적 영역에서 동질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이러한 패턴은 투표선택에서 명확히 드러나지 않거나, 후보자 감정에도 모델의 통제집단에서 온정적 성차별주의의 효과가 이론적 기대에 다소 부합하지 않는 등의 모습이 일부 발견되기도 했다. 따라서 성차별주의 지표들을 한국적 맥락에서 개발함으로써 개념의 보편성과 함께 국소성과 맥락성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김웅진, 2016). 비록 일부 심리학자들이 지표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나(안상수 외, 2005), 그 지표들을 활용한 많은 국내연구들이 주로 그것의 사회적 혹은 심리적 효과에만 주목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효과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앞선 언급된 대로, 한국정치에서 젠더이슈의 부각 또는 여성정치인 수와 역할의 확대 등을 고려했을 때, 한국유권자들의 성차별주의와 정치적 태도 및 행태 변수들 간 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구축이 요구된다.

셋째, 기존 연구들은 성차별주의가 감정적 반응을 매개하여(mediation) 정치행태 및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거나, 성차별주의의 정치적 효과는 감정적 반응에 따라 차별적으로(moderation)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Valentino et al., 2018; Cassese and Holman, 2019). 따라서 비록 본 연구에서는 성차별주의의 정치적 효과와 감정적 반응을 별도로 다루었지만, 한국적 맥락에서 세 변수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분석하는 작업도 흥미로울 것이다.

참고문헌

- 강주현. 2020. “한국 여성 유권자의 정당호감도와 여성 정치인 평가: 20대 총선을 중심으로.” 『정치정보연구』 23(1): 1-32.
- Kang, Joohyun. 2020. “Gender Gap in the Evaluation of Parties and Female Politicians: The Case of the 20th General Electio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 Communication* 23(1): 1-32.
- 권혁용·한서빈. 2018. “소득과 투표참여의 불평등: 한국 사례 연구, 2003~2014.” 『정부학연구』 24(2): 61-84.
- Kwon, Hyeok Yong and Seobin Han. 2018. “Income and Inequality in Voting: The Case of South Korea, 2003~2014.” *Journal of Governmental Studies* 24(2): 61-84.

- 김경희·김은하. 2019. “양가적 성차별주의의 점화가 여자 대학생의 자기대상화와 외모관리 수행의도에 미치는 영향: 온정적 성차별주의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4(4): 337-358.
- Kim, Kyung Hee and Eun-Ha Kim. 2019. “Priming to Ambivalent Sexism on Self-Objectification and Appearance Management Intention of College Women Students: With an Emphasis on Benevolent Sexism.”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24(4): 337-358.
- 김수한·신동은. 2014. “기업 내 여성관리자의 성차별 경험.” 『한국사회학』 48(4): 91-125.
- Kim, Soohan and Dongeun shin. 2014. “Gender Discrimination at Korean Workplace.” *Korean Journal of Sociology* 48(4): 91-125.
- 김연숙. 2014. “공정과 부정의 정치심리학: 정당에 대한 부정적 감정과 정치행태.” 『한국정치학회보』 48(2): 5-27.
- Kim, Yeun-Sook. 2014. “The Emotional Explanations of Political Behaviors.”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48(2): 5-27.
- 김용민. 2004. 『루소의 정치철학』. 인간사랑.
- Kim, Yong Min. 2004. *Rousseau's Political Philosophy*. Ingansarang.
- 김웅진. 2016. “사회과학적 개념의 방법론적 경직성: 국소성과 맥락성의 의도적 훼손.” 『국제지역연구』 19(4): 3-22.
- Kim, Ungjin. 2016. “Methodological Rigidity of the Social Science Concepts: Intentional Liquidation of Locality and Contextual Attributes.” *Journal of International Area Studies* 19(4): 3-22.
- 김창환·오병돈. 2019. “경력단절 이전 여성은 차별받지 않는가?: 대졸 20대 청년층의 졸업 직후 성별 소득격차 분석.” 『한국사회학』 53(1): 167-204.
- Kim, ChangHwan and Byeongdon Oh. 2019. “No Gender Discrimination before Career Disruption?: Gender Earnings Gap at the Early Stage of Work Career among College Graduates in South Korea.” *Korean Journal of Sociology* 53(1): 167-204.
- 김혜숙·안상수·안미영·고재홍·이선아·최인철. 2005.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여성 하위집단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3): 117-133.
- Kim, Hai Sook, Sang Su Ahn, Mi Young Ahn, Hae Hong Ko, Sun I Lee, and In Cheol Choi. 2005. “The Effect of Hostile and Benevolent Sexism on the Attitudes Toward Female Subgroups.”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19(3): 117-133.
- 노기우·이현우. 2020. “유권자들은 장관 경력을 선호하는가?: 장관 겸직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29(1): 163-196.

- Roh, Gi-Woo and Hyeon-Woo Lee. 2020. "Do Voters Prefer the Incumbents Holding Cabinet Position?: Focusing on Voters' Attitudes toward the Concurrent Positions." *Journal of Korean Politics* 29(1): 163-196.
- 문지영. 2016. "'여성 차별'에 대한 동-서양의 인식과 도전: 임윤지당과 울스톤크래프트(Mary Wollstonecraft)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50(1): 23-49.
- Moon, Jiyoung. 2016. "Awareness of and Challenge on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n the East and the West: Focusing on Im Yoonjidang and Mary Wollstonecraft."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50(1): 23-49.
- 민희·윤성이. 2016. "감정과 정치참여." 『한국정치학회보』 50(1): 271-294.
- Min, Hee and Seongyi Yun. 2016. "Emotions and Political Participation."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50(1): 271-294.
- 박선경. 2020. "젠더 내 세대격차인가, 세대 내 젠더격차인가?: 청년 여성의 자기평가이념과 정책태도 분석." 『한국정당학회보』 19(2): 5-36.
- Park, Sunkyong. 2020. "Generational Gap in Gender, or Gender Gap in Generation?: An Analysis of Ideology and Policy Attitude of Young Female." *Korean Party Studies Review* 19(2): 5-36.
- 신광영. 2011.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 차이와 차별." 『한국사회학』 45(4): 97-127.
- Shin, Kwang-Yeong. 2011. "The Gender Pay Gap in South Korea: Differences and Discrimination." *Korean Journal of Sociology* 45(4): 97-127.
- 안도경. 2014. "정치학과 실험." 『평화연구』 22(2): 326-359.
- Ahn, Toh-Kyeong. 2014. "Political Science and Experiments." *Peace Studies* 22(2): 326-359.
- 안미영·김혜숙·안상수. 2005. "적대적/온정적 성차별주의와 전제/민주방식의 여성지도자에 대한 평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2): 17-38.
- Ahn, Mi Young, Hai Sook Kim, and Sang Su Ahn. 2005. "Hostile and Benevolent Sexism and the Evaluation of the Autocratic vs. Democratic Female Leadership."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19(2): 17-38.
- 안상수·김혜숙·안미영. 2005. "한국형 양가적 성차별주의 척도(K-ASI)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2): 39-66.
- Ahn, Sang Su, Hai Sook Kim, and Mi Young Ahn. 2005.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Korean Ambivalent Sexism Inventory."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19(2): 39-66.
- 오주령·박지선. 2019. "성별 및 양가적 성차별 주의가 데이트 폭력에 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법』 10(1): 47-65.
- Oh, Juryeong and Jisun Park. 2019. "The Effect of Gender and Ambivalent Sexism on

- the Perception of Dating Violence.” *Korean Journal of Forensic Psychology* 10(1): 47-65.
- 이강형. 2013. “정치참여 행위에 있어서 정치 효능감과 정서적 반응의 역할: 분노(anger)와 두려움(fear)을 중심으로.” 『의정연구』 19(2): 137-167.
- Lee, GangHeong. 2013. “The Role of Political Efficacy and Emotional Response in Political Participation: Voters’ Anger and Fear.” *Korean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19(2): 137-167.
- 이나영. 2016. “여성혐오와 젠더차별, 페미니즘: ‘강남역 10번 출구’를 중심으로.” 『문화와 사회』 22: 147-186.
- Lee, Na-Young. 2016. “Misogyny, Gender Discrimination, and Feminism: A Feminist Project of Social Justice surrounding the Gangnam Station 10th Exit.” *Culture & Society* 22: 147-186.
- 장지연·양수경. 2007. “승진대기기간의 성별격차와 결정요인.” 『한국사회학』 41(4): 104-127.
- Chang, Jiyeun and Su Kyung Yang. 2007. “Gender Differences in Promotions.” *Korean Journal of Sociology* 41(4): 104-127.
- 전용주. 2019. “후보의 선거 경쟁력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보』 29(4): 23-41.
- Jeon, Yongjoo. 2019.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Electoral Competitiveness of Candidates: A Case Study on the 20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of Korea.” *21st Century Political Science Review* 29(4): 23-41.
- 허 은. 2013. “노동시장 계층별 성별직업분리에 관한 연구: 수직적/수평적 분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7(2): 241-266.
- Heo, Eun. 2013. “A Study on the Occupational Gender Segregation by the Layers of Labor Market: Focusing on the Forms of Vertical/Horizontal Segregation.” *Korean Journal of Sociology* 47(2): 241-266.
- Achen, Christopher H. and Larry M. Bartels. 2017. *Democracy for Realists: Why Elections Do Not Produce Responsive Governmen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Barreto, Manuela and Naomi Ellemers. 2005. “The Burden of Benevolent Sexism: How it Contributes to the Maintenance of Gender Inequalitie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5: 633-642.
- Bartels, Larry M. 2002. “Beyond the Running Tally: Partisan Bias in Political Perceptions.” *Political Behavior* 24(2): 117-150.

- Brescoll, Victoria L. and Eric Luis Uhlmann. 2005. "Attitudes toward Traditional and Nontraditional Parent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9: 436-445.
- Brookman, David E. and Christopher Skovron. 2018. "Bias in Perceptions of Public Opinion among Political Elites." *American Politician Science Review* 112(3): 542-563.
- Campbell, Angus, Philip E. Converse, Warren E. Miller, and Donald D. Stokes. 1960. *The American Voter*. New York: Wiley.
- Cassese, Erin C. and Mirya R. Holman. 2019. "Playing the Woman Card: Ambivalent Sexism in the 2016 U.S. Presidential Race." *Political Psychology* 40(1): 55-74.
- Christopher, Andrew N. and Mark R. Wojda. 2008.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Right-Wing Authoritarianism, Sexism, and Prejudice toward Women in the Workforce."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2: 65-73.
- Coppock, Alexander. 2019. "Generalizing from Survey Experiments Conducted on Mechanical Turk: A Replication Approach." *Political Science Research and Methods* 7(3): 613-628.
- Dahl, Julia, Theresa Vescio, and Kevin Weaver. 2015. "How Threats to Masculinity Sequentially Cause Public Discomfort, Anger, and Ideological Dominance over Women." *Social Psychology* 46(4): 242-254.
- Easton, David. 1953. *The Political System: An Inquiry into the State of Political Science*. New York: Alfred A. Knopf.
- Ellithorpe, Morgan E., Yan Huang, and Mary Beth Oliver. 2019. "Reach Across the Aisle: Elevation from Political Messages Predicts Increased Positivity toward Politics, Political Participation, and the Opposite Political Party." *Journal of Communication* 69: 249-272.
- Ellsworth, Phoebe C. and Craig A. Smith. 1985. "From Appraisal to Emotion: Differences among Unpleasant Feelings." *Motivation and Emotion* 12: 271-302.
- Freedman, David A. 2008. "On Regression Adjustments in Experiments with Several Treatments." *Annals of Applied Statistics* 2(1): 176-196.
- Frijda, Nico H. 1987. "Emotion, Cognitive Structure, and Action Tendency." *Cognition and Emotion* 1(2): 115-143.
- Glick, Peter, Nuray Sakallı-Ugurlu, Maria Cristina Ferreira, and Marcos Aguiar de Souza. 2002. "Ambivalent Sexism and Attitudes toward Wife Abuse in Turkey and Brazil."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6: 292-297.
- Glick, Peter and Susan T. Fiske. 1997. "Hostile and Benevolent Sexism: Measuring Ambivalent Sexist Attitudes Toward Wome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1: 119-135.

- Goldberg, Steven. 1993. *Why Men Rule: A Theory of Male Dominance*. Chicago: Open Court.
- Gray, Jeffrey A. 1987. *The Psychology of Fear and Stres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1990. "Brain Systems that Mediate both Emotion and Cognition." *Cognition and Emotion* 4(3): 269-288.
- Heilman, Madeline E., Aaron S. Wallen, Daniella Fuchs, and Melinda M. Tamkins. 2004. "Penalties for Success: Reactions to Women Who Succeed at Male Gender-Typed Task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9(3): 413-427.
- Huddy, Leonie, Stanley Feldman, and Erin C. Cassese. 2007. "On the Distinct Political Effects of Anxiety and Anger." pp.202-230 in *The Affect Effect*, edited by Neuman R. William, George E. Marcus, Ann N. Crigler, and Michael B. MacKue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Jakupcak, Matthew, Matthew T. Tull, and Lizabeth Roemer. 2005. "Masculinity, Shame, and Fear of Emotions as Predictors of Men's Expressions of Anger and Hostility." *Psychology of Men & Masculinity* 6(4): 275-284.
- Jost, John T. and Mahzarin R. Banaji. 1994. "The Role of Stereotyping in System-Justification and the production of False Consciousnes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3: 1-27.
- Jost, John T., Mahzarin R. Banaji, and Brian A. Nosek. 2004. "A Decade of System Justification Theory: Accumulated Evidence of Conscious and Unconscious Bolstering of the Status Quo." *Political Psychology* 25(6): 881-919.
- Key, V. O., Jr. 1966. *The Responsible Electorate: Rationality in Presidential Voting 1936-1960*.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Kray, Laura J., Laura Howland, Alexandra G. Russell, and Lauren M. Jackman. 2017. "The Effects of Implicit Gender Role Theories on Gender System Justification: Fixed Beliefs Strengthen Masculinity to Preserve the Status Quo."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2(1): 98-115.
- Kritzer, Herbert M. 1978. "Ideology and American Political Elites." *Public Opinion Quarterly* 42(4): 484-502.
- Lazarus, Richard S. 1991. *Emotion and Adapt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Lerner, Jennifer S. and Dacher Keltner. 2000. "Beyond Valence: Toward a Model of Emotion-Specific Influence on Judgment and Choice." *Emotion and Cognition*

14(4): 473-493.

- Lin, Winston. 2013. "Agnostic Notes on Regression Adjustments to Experimental Data: Reexamining Freedman's Critique." *Annals of Applied Statistics* 7(1): 295-318.
- Marcus, George E. and Michael B. MacKuen. 1993. "Anxiety, Enthusiasm, and the Vote: The Emotional Underpinnings of Learning and Involvement during Presidential Campaign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7(3): 672-685.
- Marcus, George E., W. Russell Neuman, and Michael B. MacKuen. 2000. *Affective Intelligence and Political Judgmen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ills, C. Wright. 1956. *The Power Elit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Ratliff, Kate A., Liz Redford, John Conway, and Colin Tucker Smith. 2019. "Engendering Support: Hostile Sexism Predicts Voting for Donald Trump over Hillary Clinton in the 2016 U.S. Presidential Election."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22(4): 578-593.
- Sibley, Chris G., Nickola C. Overall, and John Duckitt. 2007. "When Women Become More Hostilely Sexist toward their Gender: The System-Justifying Effect of Benevolent Sexism." *Sex Roles* 57: 743-754.
- Sniderman, Paul M. 2011. "The Logic and Design of the Survey Experiment." pp. 102-114 In *Cambridge Handbook of Experimental Political Science*, edited by James N. Druckman, Donald P. Green, James H. Kuklinski, and Arthur Lupia.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iedens, Larissa Z. and Susan Linton. 2001. "Judgment under Emotional Certainty and Uncertainty: The Effects of Specific Emotions on Information Process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6): 973-988.
- Valentino, Nicholas A., Ted Brader, Eric W. Groenendyk, Krysha Gregorowicz, and Vincent L. Hutchings. 2011. "Election Night's Alright for Fighting: The Role of Emotions in Political Participation." *Journal of Politics* 73(1): 156-170.
- Valentino, Nicholas A., Carly Wayne, and Marzia Ocenio. 2018. "Mobilizing Sexism: The Interaction of Emotion and Gender Attitudes in the 2016 US Presidential Election." *Public Opinion Quarterly* 82: 799-821.
- Villalobos, Jose D. and Cigdem V. Sirin. 2017. "The Relevance of Emotions in Presidential Public Appeals: Anger's Conditional Effect on Perceived Risk and Support for Military Interventions." *Presidential Studies Quarterly* 47(1): 146-168.
- Zaller, John. 1991. "Information, Values, and Opin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5(4): 1215-1237.

김기동은 미주리대학교 정치학과에서 박사과정 중이며, 선거 및 정치행태와 정치심리에 대해 주로 연구한다. *Korea Observer, Issues & Studies* 등에 논문을 출판했다.

이재목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이며, 선거와 정치행태, 미국정치와 한국 정치, 공공여론에 대해 주로 연구한다. *PS: Political Science & Politics,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ca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등에 논문을 출판했다.

정다빈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박사과정 중이며, 정치대표성, 지방정치, 청년정치에 대해 주로 연구한다. 『21세기정치학회보』, 『동서연구』, 『통일연구』 등에 논문을 출판했다.

[2020.08.19 접수; 2020.10.20 수정; 2020.11.09 게재확정]

Political and Emotional Effects of Ambivalent Sexism: A Survey Experiment in South Korea

Gidong Kim

University of Missouri

Jae Mook Le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Da Bin Jung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study examines political and psychological effects of ambivalent sexism. The effects of sexism, which is different from biological sex and sociological gender, are witnessed in political areas beyond psychological and sociological areas. By conducting an experimental survey, we analyze how ambivalent sexism affects Korean voters' political attitudes when gender issues are salient in election campaigns. Our findings present that hostile and benevolent sexism have similar political effects even though they show different emotional reactions. Specifically, while hostile sexism reacts to sexist political elites in a direct and active way, benevolent sexism in an indirect and passive way. Hence, we suggest that gender-discriminational remarks of political elites can activate voters' latent sexism during election campaigns, which in turn influence their political attitudes.

Key words: ambivalent sexism, political effects, emotional effects, survey experiment

<Appendix 1> Comparison of Samples: the Experiment and KGSS (2018) (N, %)

	Variable	Present experiment	KGSS (2018)
Gender	Male	255(50.30%)	468(45.39%)
	Female	252(49.70%)	563(54.61%)
Age group	20s	92(18.15%)	172(16.70%)
	30s	110(21.70%)	140(13.59%)
	40s	114(22.49%)	176(17.09%)
	50s	106(20.91%)	183(17.77%)
	60s ≤	85(16.77%)	359(34.85%)
Income	Low	59(11.64%)	224(25.03%)
	Middle	252(49.70%)	360(40.22%)
	High	196(38.66%)	311(34.75%)
Education	High school ≥	119(23.47%)	545(52.92%)
	College	340(67.06%)	414(40.19%)
	Graduate ≤	48(9.47%)	71(6.89%)
Region	Seoul	117(23.08%)	194(18.82%)
	Gyeonggi·Incheon	166(32.74%)	204(19.79%)
	PK	73(14.40%)	308(29.87%)
	TK	50(9.86%)	
	Honam	42(8.28%)	135(13.09%)
	Chungcheong·Sejong	42(8.28%)	128(12.42%)
	Gangwon·Jeju·Others	17(3.35%)	62(6.01%)
	Total	507(100.0%)	1031(100.0%)

〈Appendix 2〉 Mean Comparison (Total Sample)

Variable (N)		Vote choice (Party A)	Party A candidate thermometer	Party B candidate thermometer
Gender	Male (255)	0.42	43.02	47.62
	Female (252)	0.31	35.79	49.36
	F	6.62*	9.41**	0.58
Age group	20s (92)	0.38	40.01	47.94
	30s (110)	0.30	37.48	47.96
	40s (114)	0.37	38.53	45.95
	50s (106)	0.37	42.22	50.16
	60s ≤ (85)	0.43	39.04	51.07
	F	0.84	0.48	0.62
Income	Low (59)	0.38	41.74	48.93
	Middle (242)	0.34	40.29	47.92
	High (196)	0.40	37.62	49.08
	F	0.83	0.80	0.12
Education	High school ≥ (119)	0.36	42.21	51.59
	College (340)	0.36	39.10	47.86
	Graduate ≤ (48)	0.43	34.85	45.18
	F	0.48	1.38	1.35
Region	Seoul (117)	0.37	39.42	52.11
	Gyeonggi·Incheon (166)	0.38	38.46	45.75
	PK (73)	0.27	40.35	48.68
	TK (52)	0.32	38.82	53.70
	Honam (42)	0.42	38.90	48.59
	Chungcheong·Sejong (42)	0.45	46.16	43.69
	Gangwon·Jeju·Others (17)	0.47	31.41	45.64
	F	1.02	0.75	1.31

Note: Results are not different from analyses on the control group.

** $p < 0.01$, * $p < 0.05$.

<Appendix 3> Descriptive Statistics

Variable	N	Mean	S.D.	Min.	Max.
Vote choice (Party A)	507	0.372	0.484	0	1
Party A candidate thermometer	507	39.431	26.734	0	100
Party B candidate thermometer	507	48.489	25.839	0	100
Anger	507	4.064	0.810	1	5
Fear	507	3.468	0.956	1	5
Enthusiasm	507	2.043	0.965	1	5
Hostile sexism	507	2.690	0.919	1	5
Benevolent sexism	507	2.917	0.862	1	5
Female	507	0.497	0.500	0	1
Age group	507	3.964	1.350	2	6
Education	507	1.859	0.557	1	3
Income	507	6.169	2.577	1	12
Region					
Seoul·Gyeonggi·Incheon	507	0.558	0.497	0	1
Yeongnam	507	0.242	0.429	0	1
Honam	507	0.082	0.275	0	1
Others	507	0.116	0.320	0	1
Treatment	507	0.502	0.500	0	1

<Appendix 4> Sexism and Political Attitudes

	Vote choice (Party A)		Party A candidate thermometer		Party B candidate thermometer	
	Treatment	Control	Treatment	Control	Treatment	Control
Hostile Sexism	0.352 (0.294)	0.083 (0.176)	5.108** (1.958)	1.618 (1.970)	1.107 (2.125)	0.026 (1.823)
Benevolent Sexism	0.092 (0.296)	0.171 (0.179)	4.452* (1.967)	5.690** (2.020)	3.833 (2.134)	4.793* (1.869)
Female	0.140 (0.502)	-0.342 (0.304)	-0.684 (3.437)	-6.426 (3.482)	-2.246 (3.730)	5.310 (3.221)
Age group	-0.035 (0.180)	0.132 (0.104)	-1.878 (1.227)	0.878 (1.186)	0.860 (1.332)	-0.737 (1.098)
Education	-0.040 (0.436)	0.251 (0.268)	-1.957 (2.932)	-6.585* (3.047)	-5.708 (3.182)	-3.010 (2.819)
Income	-0.078 (0.100)	0.049 (0.059)	0.353 (0.640)	-0.426 (0.670)	1.671* (0.694)	-0.150 (0.620)
Constant	-3.027 (1.573)	-1.050 (0.914)	14.026 (10.459)	40.295** (10.413)	35.433** (11.349)	37.861** (9.634)
Region FE	Yes	Yes	Yes	Yes	Yes	Yes
N	255	252	255	252	255	252
Log likelihood	-68.1283		-152.082			
Adj. R ²			0.0564	0.0654	0.0215	0.0259

Note: Coefficients from logistic regressions (vote choice) and OLS regressions (candidate thermometer) are presented. Standard errors are in parentheses.

** $p < 0.01$, * $p < 0.05$.

〈Appendix 5〉 Sexism and Political Attitudes: Conditional Effect of Gender

	Vote choice (Party A)		Party A candidate thermometer		Party B candidate thermometer	
	Treatment	Control	Treatment	Control	Treatment	Control
Hostile sexism	0.411 (0.447)	0.027 (0.247)	3.236 (3.197)	1.369 (2.660)	1.126 (3.474)	-0.970 (2.445)
Benevolent sexism	-0.393 (0.434)	-0.008 (0.264)	1.540 (3.108)	5.891* (2.875)	1.174 (3.376)	7.627** (2.643)
Female	-1.861 (2.413)	-1.364 (1.249)	-20.074 (15.864)	-6.581 (13.956)	-13.413 (17.235)	14.220 (12.829)
Hostile × Female	-0.304 (0.590)	0.031 (0.377)	2.232 (4.099)	0.718 (4.247)	-0.840 (4.453)	4.061 (3.904)
Benevolent × Female	0.932 (0.585)	0.313 (0.372)	4.356 (3.930)	-0.590 (4.179)	4.465 (4.270)	-6.593 (3.841)
Age group	-0.018 (0.182)	0.136 (0.106)	-1.889 (1.233)	0.842 (1.207)	0.927 (1.340)	-0.983 (1.109)
Education	-0.008 (0.441)	0.265 (0.274)	-1.891 (2.942)	-6.489* (3.122)	-5.523 (3.196)	-2.545 (2.870)
Income	-0.071 (0.100)	0.045 (0.059)	0.435 (0.643)	-0.428 (0.675)	1.732* (0.699)	-0.125 (0.620)
Constant	-1.977 (2.280)	-0.356 (1.228)	27.903 (15.649)	40.400** (13.587)	42.342* (17.003)	32.178* (12.491)
Region FE	Yes	Yes	Yes	Yes	Yes	Yes
N	255	252	255	252	255	252
Log likelihood	-66.8175	-151.640				
Adj. R ²			0.0552	0.0578	0.0179	0.0304

Note: Coefficients from logistic regressions (vote choice) and OLS regressions (candidate thermometer) are presented. Standard errors are in parentheses.

** $p < 0.01$, * $p < 0.05$.

<Appendix 6> Sexism and Emotion

	Anger		Fear		Enthusiasm	
	Treatment	Control	Treatment	Control	Treatment	Control
Hostile Sexism	-0.099*	-0.021	0.104	0.052	0.267**	0.155*
	(0.050)	(0.066)	(0.072)	(0.075)	(0.065)	(0.075)
Benevolent Sexism	0.017	-0.117	0.166*	0.032	0.239**	0.284**
	(0.050)	(0.068)	(0.072)	(0.077)	(0.065)	(0.077)
Female	0.339**	-0.013	0.275*	-0.145	0.072	0.169
	(0.088)	(0.117)	(0.126)	(0.132)	(0.114)	(0.133)
Age group	0.060	0.042	0.084	0.078	-0.178**	-0.093*
	(0.031)	(0.039)	(0.045)	(0.045)	(0.040)	(0.045)
Education	-0.071	0.058	0.001	-0.051	0.060	-0.037
	(0.075)	(0.102)	(0.108)	(0.116)	(0.097)	(0.116)
Income	0.078**	0.065**	0.030	0.050	-0.061**	-0.008
	(0.016)	(0.022)	(0.023)	(0.025)	(0.021)	(0.025)
Constant	3.648**	3.741**	2.110**	2.844**	1.481**	1.314**
	(0.268)	(0.350)	(0.385)	(0.396)	(0.347)	(0.398)
Region FE	Yes	Yes	Yes	Yes	Yes	Yes
N	255	252	255	252	255	252
Adj. R ²	0.1843	0.0776	0.0638	0.0367	0.1929	0.0796

Note: Coefficients from OLS regressions are presented. Standard errors are in parentheses.

** $p < .01$, * $p < .05$.

〈Appendix 7〉 Sexism and Political Attitudes: Conditional Effect of Gender

	Anger		Fear		Enthusiasm	
	Treatment	Control	Treatment	Control	Treatment	Control
Hostile sexism	0.012 (0.081)	0.096 (0.088)	0.107 (0.118)	0.196 (0.100)	0.175 (0.106)	0.084 (0.101)
Benevolent sexism	0.025 (0.079)	-0.032 (0.095)	0.127 (0.114)	0.073 (0.108)	0.184 (0.103)	0.344** (0.109)
Female	0.796 (0.406)	0.909 (0.465)	0.119 (0.586)	0.684 (0.527)	-0.510 (0.527)	0.138 (0.531)
Hostile × Female	-0.183 (0.104)	-0.238 (0.141)	-0.017 (0.151)	-0.325* (0.160)	0.136 (0.136)	0.206 (0.161)
Benevolent × Female	0.017 (0.100)	-0.093 (0.139)	0.067 (0.145)	0.014 (0.157)	0.066 (0.130)	-0.173 (0.159)
Age group	0.065* (0.031)	0.050 (0.040)	0.085 (0.045)	0.091* (0.045)	-0.181** (0.041)	-0.103* (0.045)
Education	-0.064 (0.075)	0.019 (0.104)	0.003 (0.108)	-0.101 (0.117)	0.057 (0.097)	-0.010 (0.118)
Income	0.077** (0.016)	0.068** (0.022)	0.031 (0.023)	0.053* (0.025)	-0.059** (0.021)	-0.008 (0.025)
Constant	3.255** (0.400)	3.147** (0.453)	0.203** (0.578)	2.310** (0.513)	1.934** (0.520)	1.335** (0.517)
Region FE	Yes	Yes	Yes	Yes	Yes	Yes
N	255	252	255	252	255	252
Adj. R ²	0.1877	0.0880	0.0570	0.0470	0.1910	0.0799

Note: Coefficients from OLS regressions are presented. Standard errors are in parentheses.

** $p < 0.01$, * $p < 0.05$.